

AI 중심도시 광주 5년...기업·인프라·인재 ‘결실’

국가AI데이터센터·실증랩 등 기반 구축...160개 기업 유치
사관학교·융합대학·대학원 등 AI·반도체 기업인재 양성
지역기업 CES 혁신상 24개 수상 등 AI 산업 경쟁력 확보

광주시가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 프로젝트’가 뚜렷한 성과를 내며 지역 산업 구조를 바꾸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 유치와 핵심 인프라 조성, 인재 양성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체계가 고도화되면서 광주형 AI 생태계가 단순한 비전을 넘어 실질적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광주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무대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내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6’에서 광주 지역 7개 기업이 최고혁신상 1건을 포함해 7건의 혁신상을 수상했다. 최근 4년 동안 광주 기업들이 거둔 CES 혁신상은 총 24개로, 같은 기간 최고혁신상

2개를 포함한다.

특히 ㈜엘비에스테크는 차량과 보행로를 연결하는 AI 솔루션으로 최고혁신상에 이름을 올렸고, 이노디테크㈜, ㈜고스트페이스, ㈜인디제이, ㈜올더타임, 마인스페이스㈜, ㈜디센트 등도 다양한 생활·안전·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기업 유치와 이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349개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160여개 기업이 실제로 광주에 본사나 지사를 이전하거나 신규 설립했다. 신규 기업 정착을 위해 AI기업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창업 공간 제공, 기술 지원, 실증 프로그램, 코드

네이밍 등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인재 양성도 기업 수요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는 실무형 AI 특화 인재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의 AI 융합대학과 AI대학원은 학·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다.

전남대 반도체특성화대학은 25개 캡리스 기업과 협력해 반도체 전문 인력을 키우며 산업계와의 연계도 강화했다. 기업과 교육기관 간 협업 구조가 촘촘해지면서 기술력과 실무역량을 동시에 갖춘 인재가 공급되고, 이는 곧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의 AI 생태계는 기업 간 협력 중심으로 확장되고 있다.

광주시는 기업들의 기술·데이터 공유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는 산업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협업 생태계를 강화했다. 최근에는 국산 AI 반도체(NPU)를 활용한 공동 기술 고도화 프로젝트가 활발하다. 이노디테크는 퓨리오사AI, 리벨

리온과 협력해 치과 투병교정 솔루션의 AI 분석 성능을 높이고 있으며, 인트플로우는 딥엑스 NPU 기반 AI 카메라를 활용해 전국 70여 개 축사에서 가축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축산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러한 공동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속 지원하며 기업 간 동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1단계 AI집적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5년간 6000억원을 투입하는 ‘AX(AI Transformation) 실증밸리’ 사업에 착수한다. 모빌리티·에너지 등 지역 전략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다.

AI 기술 실증·사업화·상용화를 지원하는 AI이노스페이스 구축, AI융복합기업 1000개 집적, 6000명 이상 고용 창출도 추진된다.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사업 추진 속도도 높아지고 있다.

미래 전략사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시는 국가NPU(신경망처리장치) 컴퓨팅센터를 비롯해

AI국제프리 실증도시 조성, 국가AI연구소 유치 등에 나서며 AI반도체 기반의 국가 핵심거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PU는 AI 추론 단계에서 GPU 대비 최대 100배 효율을 보이는 차세대 반도체로, 광주는 이를 중심으로 AI반도체 생태계와 대규모 컴퓨팅 기반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의 AI 도시 도약은 선언을 넘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AX 실증밸리, NPU 데이터센터, 국가AI연구소 유치 등 전략 사업이 현실화될 경우 광주는 기술 실증의 시험장을 넘어 세계 시장을 향한 기술 출발점이자 글로벌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태조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광주의 AI산업은 이제 비전 단계에서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이 뚜렷해지는 실질적 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며 “기업 맞춤형 지원체제와 첨단 기반시설을 결합해 광주를 대한민국 AI산업의 거점이자 세계적인 기술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 첨단3지구 인공지능집적단지에서 열린 ‘모두의 AI, 광주 비전 선포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참석자들이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시민결의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신세계, 청년 빵카페 ‘두겹베이커리’ 팝업

저소득층 자활기업...27일까지 바게트 소금빵 판매

광주신세계가 오는 27일까지 분관 지하 1층에서 광주 청년 베이커리카페인 ‘(유)두겹베이커리’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프랑스산 고메버터를 사용한 초코소금빵, 흑임자 소금빵, 소보로 소금빵, 바게트(플레인) 소금빵 등 4가지의 소금빵을 판매한다.

대표 메뉴인 ‘바게트 소금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겉바속촉의 정성이며, 버터의 진한 풍미가 가득한 점이 특징이다.

팝업 오픈을 기념해 2만원 이상 구매 시 선착순 100명에게 굿즈(오프너, 대왕피규어, 그림통 등)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됐다.

두겹베이커리는 지난 2021년 9월 지역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광주동구지역자활센터 내

사업단으로 출발해 11월 1일 자활기업으로 출범했다. 매일 오전 1시 소금빵 등 다양한 빵을 정성으로 만든다.

두겹베이커리는 팝업스토어 기간 동안 광주 동구 서석동의 본 매장 운영을 임시 중단하고 28일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두겹베이커리 관계자는 “여러분의 큰 사랑에 힘입어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게 됐다”며 “행사 기간 동안 한입마다 다른 매력 4가지 맛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지역 맛집을 고객에게 소개하기 위해 팝업스토어를 준비하게 됐다”며 “현직법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 브랜드를 발굴해 전국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신세계는 오는 27일까지 분관 지하 1층에서 광주 동구 서석동 청년 베이커리 카페인 ‘(유)두겹베이커리’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현대차·기아, 현대해상과 로봇 특화 보험 개발

로보틱스 기반 보험·금융 서비스 고도화 협력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로보틱스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험상품과 금융 연계 모델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기아는 현대해상과 ‘로보틱스 기반 보험·금융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로봇 특화 보험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연내 1호 보험상품인 ‘딥테크 종합보험’을 출시하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양측은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현대차·기아가 운영 중인 배송 로봇과 전기차 충전 로봇의 실증 사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리스크를 분석해왔다.

현대차·기아는 향후 자체 개발한 로봇을 운영하거나 판매할 경우 보험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양측은 로봇 운영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로봇 사용자의 총소유비용 절감을 위한 보험·금융 연계형 신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존진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 상무는 “로봇산업에 특화된 보험과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 모델을 정립해 로봇 기술의 상용화에 앞장서고 나아가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의영 현대해상 기업보험부문장은 “다가올 미래에 보다 안전하고 인간 친화적인 로봇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여하고 다양한 방면에서 혁신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



(주)주미당,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 성과...GICON, 창업도약패키지 지원

(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기업(주)주미당(대표 김동완·사진)이 최근 열린 ‘2025 AI 전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AI 기술을 활용해 경영 혁신을 이룬 중소기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전문평가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단위 AI 혁신사례 공모전이다.

주미당은 제조 현장에 AI 기술을 직접 적용해 생산 효율성·공정 안정성·데이터 관리 체계를 눈에 띄게 개선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AI 기반 공정 데이터 자동 수집·분석 시스템 구축 △제품 불량률 예측 모델 개발 △실시간 제조 모니



터링 체계 도입 등 공정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 정량·정성 성과를 모두 입증했다.

주미당은 내년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 K-STARTUP 통합관’ 참가를 확정하는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GICON은 2017년부터 9년 연속 창업도약패키지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왔으며, 창업지원기관·투자사(VC·AC) 등과 연계해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